



글로벌 IT기업 인재영입 '명암'



# '인재' 찾기 주력

위구연 하버드 교수·장우승 박사 등  
미래기술 개발 주도 글로벌 인재 영입  
해외법인서도 현지 전문가 불러들여

삼성전자와 애플이 인재 관리에서도 명암을 뚜렷이 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혁신을 위한 인재 찾기에 주력하는 반면, 애플은 핵심 인사들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래 기술 개발과 주력 사업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들을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위구연 교수는 펠로우로 활동한다. 삼성리서치에서 인공지능경망(NPU) 기반 차세대 프로세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세계 최소형 곤충 로봇 '로보비'의 센서와 프로세서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한 인재다.

미국 미주리대학교 산업공학 교수 출신 장우승 박사는 빅데이터 개발 총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위구연  
삼성전자 신임 펠로우



윌리엄 김  
리테일·이커머스 총괄 부사장

(KIST) 강성철 박사는 전무로 영입했다. 영국 패션브랜드 올세인트 윌리엄 김 전 CEO는 무선사업부 리테일·이커머스 총괄 부사장으로 삼성에 입사한다.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 고객들과 접점을 강화해 스마트폰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폭스바겐 민승재 미국 디자인센터 총괄 디자이너도 디자인경영센터 상무로 영입, 선행 디자인 전략 수립과 기획을 맡겼다.

해외법인도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전문가를 불러들였다.

미국 법인은 채널 마케팅 전문가 제임스 피슬러를, 영국 구주총괄에서는 벤자민 브라운을 현지 임원으로 모셔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미국 프리스터 대학교 세바스찬 승 교수와 코넬테크 다니엘 리 교수를 영입하며 인재 확보를 가속화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애플은 형편이 안좋다.

30일 미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애플 제럴드 윌리엄스 3세 수석 칩 디자이너는 지난 달 회사를 그만뒀다.

윌리엄스는 애플 아이폰 등 핵심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설계해왔다. 첫 64비트 제품인 A7 개발에 합류해 뉴럴엔진을 장착한 A12X까

제럴드 윌리엄스 3세 수석 칩 디자이너 퇴사  
아이폰 핵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자

지난해도 시리 개발자 톰 그루버 총괄 퇴사  
지 9년여간 근무했다.

윌리엄스는 애플 제품들 작동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주요 부품을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맡아왔다고 전해진다.

퇴사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행선지도 아직 오리무중이다. 아직 일부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 정황은 발견된다는 추측이다.

지난해에도 애플은 시리를 개발한 톰 그루버 총괄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 밖에 주요 인력들도 애플을 나와 중국기업 등 이동하면서 기술 유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에어컨 2종을 출시했다. /LG전자

## 여러 기능을 한곳에... '올인원' 열풍 가전업계, 실속·심미 한번에 잡았다

'올인원' 가전이 열풍이다.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어서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군도 새로 생겨나는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상반기 중 프리미엄 브랜드 시그니처의 첫 에어컨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시그니처 에어컨은 5개 기능을 한 몸체에 담은 것을 가장 특징으로 한다. 냉풍과 온풍, 공기청정기 기능에 제습과 가습 등 습도 조절 기능까지 포함됐다. 진짜 에어컨이 아니라 에어컨이 아니다. 실제로, LG전자는 단순한 에어컨이 아닌 에어컨 컨디셔너라는 개념에 착안해 개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도 신경썼다. 시그니처 에어컨은 기존 제품보다 훨씬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 무풍에어컨이 깔끔한 메탈 디자인으로 시장을 주도하던 상황에서 LG전자가 가세해 시장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평범한 여름용 에어컨도 이미 공기청

정 능력을 필수로 탑재하면서 4계절 가전 자리를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와 대우위니아 등은 최근 수준 높은 필터를 함께 장착한 2019년형 에어컨을 잇따라 출시했다. 가격 인상폭도 최소화해 실속을 함께 챙겼다.

세탁기는 건조기와 '혼연일체'가 된 지 오래다. 건조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두 제품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다.

제조사들이 건조기를 드럼세탁기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직렬설치'로 출시하면서 아예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드럼세탁기 구매자는 대부분 건조기를 함께 구매한다는 전언이다.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로 통칭되는 전자동세탁기도 하나가 되는 추세다. 드럼세탁기 밑에 통돌이 세탁기 서랍을 넣은 제품이 출시되면서다. LG전자 트윈워시가 처음 시장을 열었고, 삼성전자가 플렉스 워시로 뒤를 따랐다.

아직 직렬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소비자들은 사설업체에 의뢰해 세탁실을 '삼일일체'로 만드는 노력을 들인다.

/김재용 기자

유채꽃과 영산강 황포돛배의 향연!  
600년 전통 흥어의 거리 나주영산포로 오세요!

## 제15회 영산포 흥어축제

2019.4.12.금 - 4.14.일

영산포 둔치체육공원 일원

주최·주관 | 영산포흥어축제추진위원회